



10월 말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

1. KOSPI 지수 11월에만 +10.0% 상승

- 대주주 요건, 바이든 당선, 백신개발 등이 호재로 작용
- 약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재 장의 상황
- 2010년 이후 KOSPI 지수의 월간단위 두 자리 상승은 20년 4월이 유일
- 한국증시, 11월 상승으로 YTD 수익률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

2. 외국인과 개인의 달라진 수급

- 연초 이후 개인은 46.6조원을 순매수하며 증시를 주도
- 10월 들어 개인 순매수 강도 둔화, 11월에는 5.3조원 순매도 중
- 개인 거래비중의 감소 또한 눈에 띄는 부분
- 외국인은 10월까지 27.7조원을 순매도했지만, 11월 들어 4.3조원 순매수

3. 달라진 상승 업종, 그리고 종목

- 11월 상승률 상위 업종은 해운, 정유, 항공, 조선, 화학, 철강 순
- 11월 급등에도 불구하고,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중인 업종이 대부분
- 종목별로도 소외됐던 종목을 상승이 눈에 띈
- 수급의 변화와 함께 장의 색깔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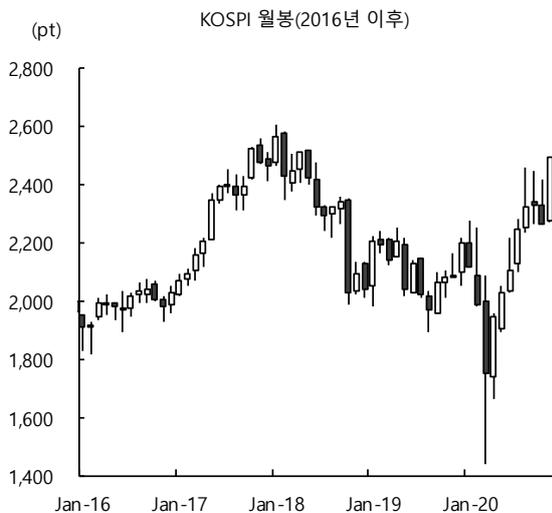
1. KOSPI지수 11월에만 +10.0% 상승

2,267.15pt로 시작한 KOSPI 지수는 11월에만 +10.0% 상승, 2,500pt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호재성 이슈로는 1)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11/3), 2) 바이든 당선 (11/5), 3)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개발(11/10) 뉴스 등이 있었고, 발표중인 3분기 실적, 수출데이터도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재 시장의 상황이 빠른 상승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KOSPI 지수의 월간단위 10% 상승은 2010년 이후 딱 한번 있었다. 바로 올해 4월이었다. 3월의 급락(-11.7%) 이후 +11.0% 상승한 것이 최근 10년간 기록된 유일한 두 자리 수 수익률이었다. 참고로 지난 10월 KOSPI 수익률은 -2.6% 였는데, 이는 3월 이후 첫 월간단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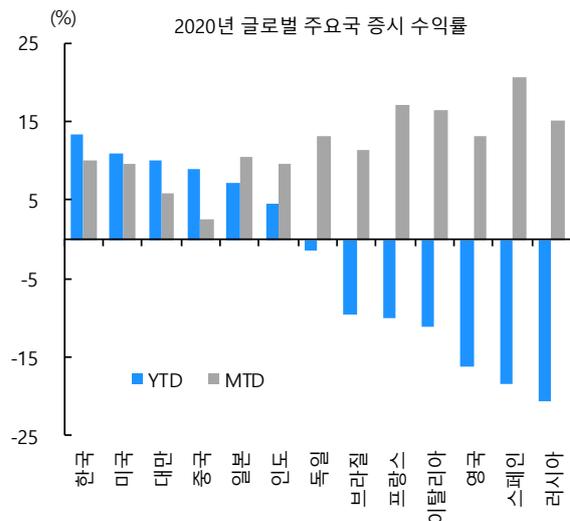
한국증시 상승률은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11월 들어 뚜렷한 상승을 보인 유럽증시는 연초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된 국가였다. 연초~10월까지 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았던 중국, 대만은 11월 들어 +2.6%, +5.7% 상승에 그쳤고, 어느덧 한국증시는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YTD 수익률 최상위가 됐다.

[차트1] KOSPI 지수, 11월 들어 +10.0% 상승
월간단위 두 자리 상승률은 2010년 이후 2번째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한국증시,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수익률 1위
11월 수익률은 유럽증시가 높게 나타남



주: 각국 대표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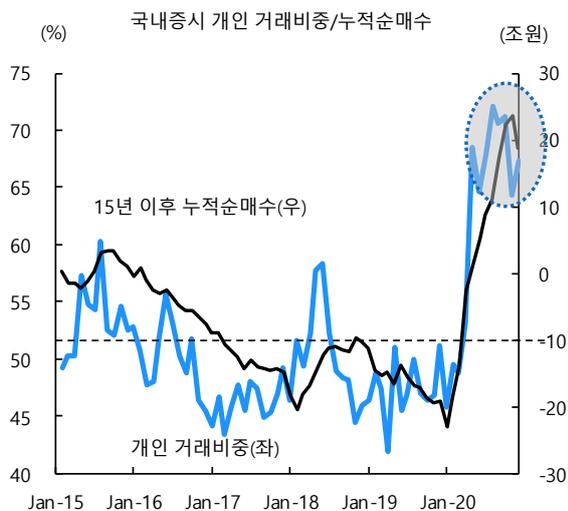
2. 외국인과 개인의 달라진 수급

KOSPI 지수는 4월~9월 월간 단위 6개월 연속 상승했고, 10월에도 28일까지 MTD 수익률을 (+)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것은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매수였다.

흐름은 10월부터 달라졌다. 8월 16.2조, 9월 14.2조원을 기록한 KOSPI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월 들어 10.8조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7~9월 3개월 연속 70%를 넘어섰던 개인 거래비중은 10월 64%대로 낮아졌다. (11월 13일 현재 67.6%). 개인의 매수세도 10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11월 들어서는 2주간 5.3조원을 순매도 하고 있다. 반면, 연초 이후 27.7원을 순매도하며 수급 공백을 야기했던 외국인은 11월 들어 4.3조원을 순매수,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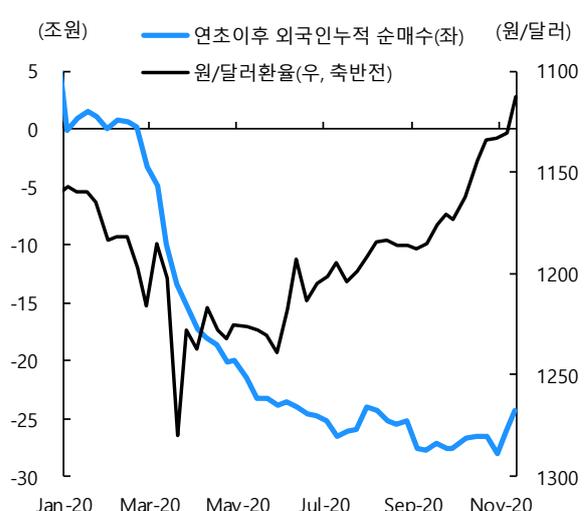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잘 이뤄졌고, 환율 하락으로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진 것이 외국인 순매수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110원대로 낮아진 점, 백신의 효능이 입증될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잘 통제된 한국의 프리미엄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향후 눈여겨 봐야 할 요소다.

**[차트3] 10월 들어 개인의 순매수 강도 둔화
개인의 거래비중도 소폭 하락**



주: KOSPI 기준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환율의 흐름,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였다.
외국인, 11월 들어 4.3조원 순매수 중**



주: KOSPI 기준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달라진 상승 업종, 그리고 종목

11월 상승률 상위 업종은 해운, 정유, 항공, 조선, 화학, 철강 순이다. 11월 급등에도 불구하고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연초 이후 흐름이 좋지 않았던 업종들이다. 화학의 경우도 업종 내 수익률 상위 종목이 상반기 LG화학, 한화솔루션, 포스코케미칼에서 8월 이후 금호석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등으로 바뀌었다.

종목별로는 대한해운, 현대미포조선, 제이콘텐트리, 만도, 제주항공, SK이노베이션 등이 수익률 상위에 랭크됐고,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도 월간수익률 +20%를 상회했다. 한화생명, DGB금융지주 등 한동안 소외됐던 종목의 움직임도 달라진 모습이다.

수익률 하위종목으로는 씨젠, NAVER, LG하우시스, 휴젤, 한샘 등이 꼽힌다. 언택트 관련주로 꼽혔던 더블유게임즈, 펠어비스 등 게임주와 NHN한국사이버결제, 아프리카TV 등이 수익률 하위에 랭크 된 것도 눈에 띈다.

증시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급의 흐름이 바뀌며 장의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트5] 11월 수익률 상위 업종, 11월 상승에도 불구하고 YTD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기록 중

수익률 상위	11월 수익률	YTD
해운	28.2	-1.2
정유	22.0	-12.2
항공	20.5	-10.2
조선	18.3	-21.8
화학	13.3	79.1
철강	12.8	-0.3
기계	12.3	30.5
수익률 하위	11월 수익률	YTD
건자재	-0.2	1.0
비철금속	1.1	-8.0
인터넷/게임	3.0	62.3
음식료	3.5	1.5
내구소비재	3.7	-8.7
SW/SI	4.5	2.1
미디어/엔터	5.4	-7.4

주: 업종 구분은 유안타 분류 기준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유니버스 내 수익률 상, 하위 종목 소외주의 반등이 눈에 띈

순위	코드	종목	업종	MTD	YTD
1	A005880	대한해운	해운	79.6	24.1
2	A010620	현대미포조선	조선	29.6	-21.2
3	A036420	제이콘텐트리	미디어/엔터	26.3	-19.6
5	A089590	제주항공	항공	24.3	-34.1
6	A096770	SK이노베이션	정유	24.3	4.0
8	A088350	한화생명	생명보험	23.5	-18.0
13	A003490	대한항공	항공	20.1	0.5
15	A139130	DGB금융지주	은행	19.7	3.9
순위	코드	종목	업종	MTD	YTD
200	A096530	씨젠	제약/바이오	-14.3	634.1
199	A035420	NAVER	인터넷/게임	-3.1	50.7
198	A108670	LG하우시스	건자재	-1.2	19.4
197	A145020	휴젤	제약/바이오	-0.7	53.8
194	A192080	더블유게임즈	인터넷/게임	-0.2	23.2
190	A060250	NHN한국사이버결제	SW/SI	0.3	203.6
189	A028150	GS홈쇼핑	소매/유통	0.4	-6.3
186	A067160	아프리카TV	미디어/엔터	0.7	-12.6

주: 유니버스 200 종목 기준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